

DREAM  
BLOSSOM  
ACADEMY  
드림블라썸 아카데미

고상희 김종문 송우석  
송지수 신현빈 이보림  
정문성 정민우 정효경  
최병철 최재훈 홍영훈



## GREETINGS

정진옥 관장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복지관

Dream Blossom Academy(D.B.A.)가 2년차 사업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2년의 시간 동안 한결같이 함께 하면서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다양한 미술적 능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아산사회복지재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한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서로 잘 어우러질 때 얼마나 멋진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 D.B.A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초기에 구상할 때부터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자신들이 지닌 능력을 사용하여 이 사회 안에서 당당히,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을 함께 가져주시는 토탈미술관 관장님을 비롯한 많은 작가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은 꿈을 묵묵히 함께 꾸어주고, 그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 온 우리 복지관의 D.B.A사업단 직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노력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2년차 사업을 무사히 완수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한 자신들의 미술적 잠재력을 발현시키기 위해 그 시간들 속에서 열심히 자신을 펼쳐 보인 발달장애인 작가들과 자녀들을 지지해주는 부모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꾸 꿈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이번에 그 진행형의 꿈이 D.B.A 2년차 사업을 통해 어떻게 실현되어 왔는지를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세상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만들어가고 실현해 가는 발달장애인들에게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GROUPWORK

천염염색과 바틱	006
●▲■ 빌리지·마블런   박혜민	014
모빌   김시하	018
나비 프로젝트   최선	024
유리자기   최유리	032
모양의 소리   해미 클레멘세비츠	036
나만의 포토북   한경은	044
유리 페인팅   최지이	050
브레멘 음악대   신제현	056

## WORK

고상희	060
김종문	066
송우석	072
송지수	078
신현빈	082
이보림	088
정문성	092
정민우	096
정효경	100
최병철	104
최재훈	110
홍영훈	116

## 천연염색과 바틱



## NATURAL DYING & BATIK



한국의 전통 염색과 인도네시아 전통 바틱 기법을 결합한 드림블라썸아카데미 작업.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바틱 (뜨거운 밀랍으로 천에 점과 선 등을 이용해 모티프를 그리는 작업)' 기법으로 드로잉 작업하고, 천연염색(꽃잎, 식물의 줄기, 과일껍질 등 자연재료를 이용하여 화학약품을 쓰지 않고 자연재료로 염색하는 한국의 전통방식)으로 채색하여 은은하면서 자연스러운 색감이 돋보이는 작업.



<바틱>, 90\*100mm, 주머니, 바틱, 천연염색, 2019



<바틱>, 90\*100mm, 주머니, 바틱, 천연염색, 2019



<바틱>, 90\*100mm, 주머니, 바틱, 천연염색, 2019



<바틱>, 90\*100mm, 주머니, 바틱, 천연염색, 2019



<바틱>, 90\*100mm, 주머니, 바틱, 천연염색, 2019



<바틱>, 90\*100mm, 주머니, 바틱, 천연염색, 2019



<바틱>, 90\*100mm, 주머니, 바틱, 천연염색, 2019



<바틱>, 90\*100mm, 주머니, 바틱, 천연염색, 2019



●▲■ 빌리지·마블러  
박혜민  
✳

●▲■ VILLAGE MARBLERUN  
WITH HAEMIN PARK



생김새나 작동원리는 복잡하지만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한 기계를 일컫는 '골드버그 장치'의 한 종류로 상상력과 편볼의 불 액션을 구현하여, 운동에너지를 통해 구슬이 움직임을 가질 수 있도록 통제하고, 그 구조를 직접 설계하여 이해하며 그 과정을 통해 조형의 원리와 예술적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업







<마블런>, 260\*370mm, 혼합매체, 2018



<마블런>, 370\*260mm, 혼합매체, 2018



<마블런>, 190\*370mm, 혼합매체, 2018



<마블런>, 260\*370mm, 혼합매체, 2018



<마블런>, 300\*260mm, 혼합매체, 2018



<마블런>, 230\*370mm, 혼합매체, 2018



<마블런>, 200\*350mm, 혼합매체, 2018



<마블런>, 230\*370mm, 혼합매체, 2018



<마블런>, 260\*370mm, 혼합매체, 2018



<마블런>, 200\*370mm, 혼합매체, 2018



<마블런>, 250\*370mm, 혼합매체, 2018



<마블런>, 260\*370mm, 혼합매체, 2018

모빌  
김시하  
\*  
MOBILE  
WITH SIHA KIM



자연물을 통해 평면과 입체적 구조를 이해하고, 다양한 오브제를 바탕으로 평면, 입체, 설치 그 사이에 빛을 더하여 작업한 현대미술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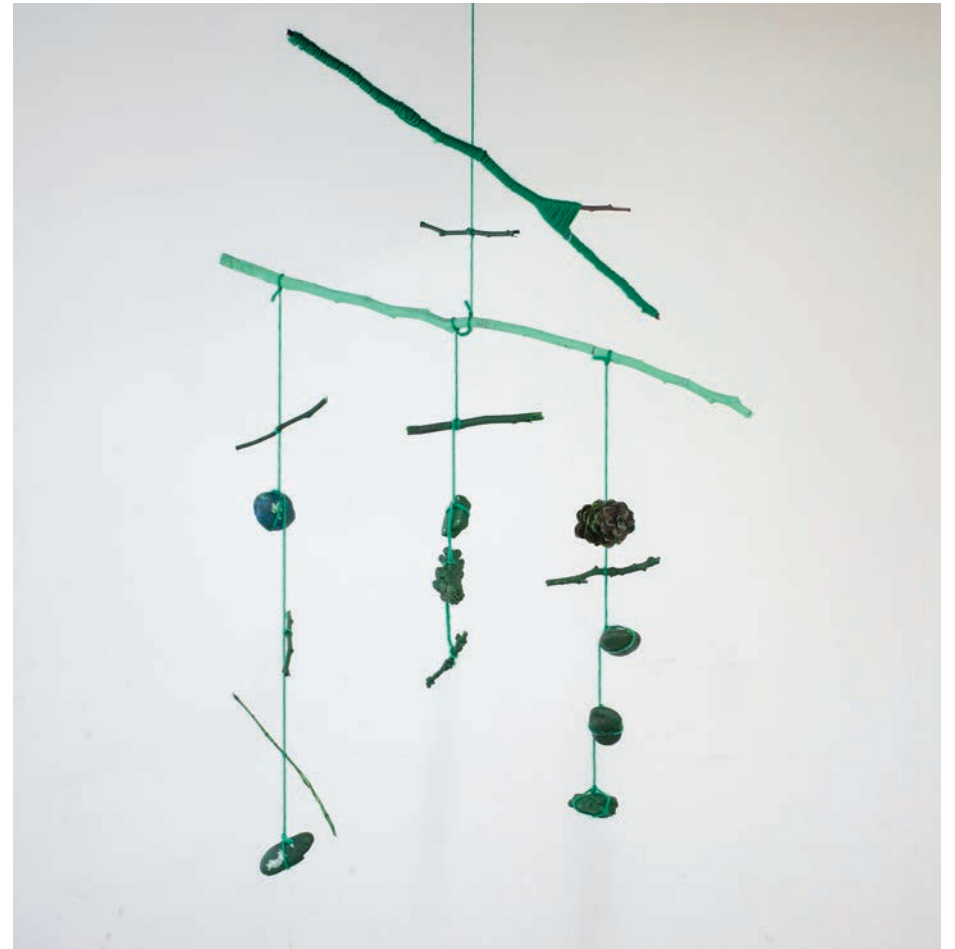
<모빌>, 300\*500mm, 혼합매체, 2019



<모빌>, 330\*500mm, 혼합매체, 2019



<모빌>, 350\*550mm, 혼합매체, 2019



<모빌>, 350\*550mm, 혼합매체, 2019

나비 프로젝트  
최선  
\*  
BUTTERFLY PROJECT  
SEUN CHOI



관념적으로만 인식하기 쉬운 자신의 숨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이질적 개인이 동일한 숨으로 하나가 됨을  
표현한 작업



<숨>, 80000\*1400mm, 캔버스, 혼합잉크, 2019



유리 자기  
최유리  
\*  
MAKING PORCELAIN  
WITH YURI CHOI



포슬린기법, 코울링 및 판성형 기법 등 찰흙을 이용한 기법을 활용하여 소근육과 두뇌를 개발하고, 찰흙 고유의 물성을 다루며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표현에 대한 즐거움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도자 작업







<나무>, 200\*220mm, 백자토, 도자물감, 2019



<나무>, 210\*200mm, 백자토, 도자물감, 2019



<나무>, 200\*250mm, 백자토, 도자물감, 2019



<나무>, 210\*200mm, 백자토, 도자물감, 2019



<나무>, 210\*220mm, 백자토, 도자물감, 2019



<바구니>, 290\*170mm, 백자토, 도자물감, 2019



<성>, 130\*230mm, 백자토, 도자물감, 2019



<성>, 130\*200mm, 백자토, 도자물감, 2019

모양의 소리  
해미 클레멘세비츠



SOUND OF SHAPE  
WITH RÉMI KLEMENSIEWICZ



소리라는 청각에 대한 시각적 인식을 통하여 청각과 시각을 바탕으로한 평면과 입체적 구조를 이해하는 공감각적인 작업



<무제>, 900\*60mm, 폼보드, 매직, 아크릴, 2019



<무제>, 900\*60mm, 폼보드, 매직, 아크릴, 2019



<무제>, 900\*60mm, 폼보드, 매직, 아크릴, 2019



<무제>, 900\*60mm, 폼보드, 매직, 아크릴, 2019



<무제>, 900\*60mm, 폼보드, 매직, 아크릴, 2019



<무제>, 900\*60mm, 폼보드, 매직, 아크릴, 2019

나만의 포토북  
한경은  
\*

MY PHOTOBOOK  
KYUNEUN HAN

다양한 사진과 자화상을 이용하여 투시적 사진을 통해  
'나'를 표현하여 창의적 자기표현과 향상된 자존감을  
나타내는 나만의 사진판화 자화상 포토북 작업



<최병철의 사진첩>, 210\*210mm, 혼합매체, 2019



<신현빈의 사진첩>, 210\*210mm, 혼합매체, 2019



<정문성의 사진첩>, 210\*210mm, 혼합매체, 2019



<홍영훈의 사진첩>, 210\*210mm, 혼합매체, 2019





<송지수의 사진첩>, 210\*210mm, 혼합매체, 2019



<최재훈의 사진첩>, 210\*210mm, 혼합매체, 2019



<정효경의 사진첩>, 210\*210mm, 혼합매체,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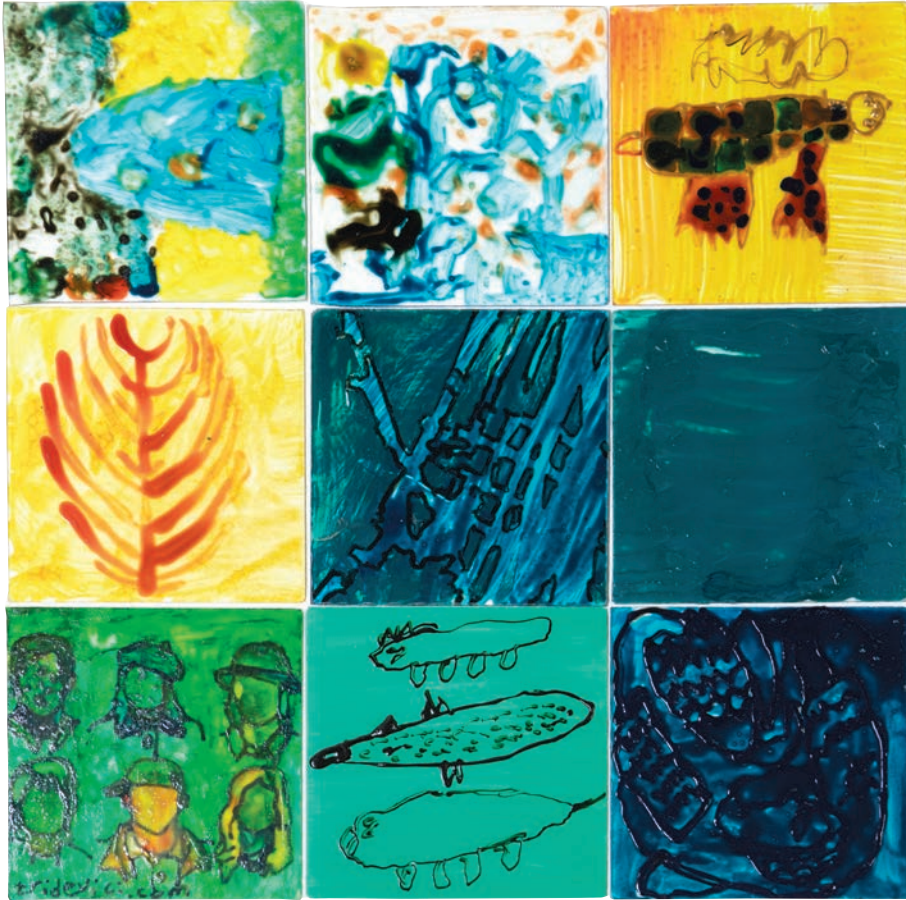


<이보림의 사진첩>, 210\*210mm, 혼합매체, 2019

유리 페인팅  
최지이  
\*  
GLASS PAINTING  
JIEE CHOI



유리라는 새로운 재료에 도전하면서 호기심을 기르고,  
다양한 색상과 이미지를 올려 실생활에서 예술을 만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유리 작품을 제작하며 재질에 따른  
표현의 차이를 경험하는 유리 작업



<오브제>, 300\*300mm, 혼합매체, 2019



<오브제>, 100\*100mm, 혼합매체, 2019



<오브제>, 100\*100mm, 혼합매체, 2019



<무제>, 120\*84mm, 혼합매체, 2019



<무제>, 120\*84mm, 혼합매체, 2019

브레멘 음악대  
신제현



THE TOWN MUSICIAN OF BREMENE  
JEHYUN SHIN



기존의 화성 체계 악기가 아닌 나만의 악기를 만들어 보고  
연주하면서 그동안 소음, 이상한 소리로 저평가된 소리들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연주를 진행하는 미디어 작업



<기타>, 20\*60\*75mm, 혼합매체, 2019



<기타>, 20\*60\*75mm, 혼합매체, 2019



\*  
고상희

## DREAM BLOSSOM ACADEMY

### 고상희, 푸른, 파란, 파랑색

고상희의 이야기를 우리는 늘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 평소 그녀가 말하는 문장은 늘 긍정의 서술어가 가득하다. “뭐가 그렇게 좋아?”, “예쁘다.”, “재밌어요.” 하지만 그녀의 현재 감정은 그녀가 내뿜는 문장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아마도 누군가에게 받아온 어휘에 대한 교육이 항상 그녀로 하여금 긍정적인 단어들의 나열을 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상희가 하는 말을 실제 기분과 상관없이 늘 긍정적으로 만들 수는 있어도 상희가 파란색을 안 쓰게 만들 수는 없다. 그녀는 파란색 정확히는 울트라 마린을 집착적으로 사용한다. 어떤 종류의 작업을 하더라도 아주 정확하게 물감, 파스텔, 유성펜, 색종이 등에서 파란색을 골라낸다. 여러 심리학적인 접근에서 파란색은 때로 보수적이고, 전통적이기도 한 안정적인 색으로도 분류되기도 하고, 외로움, 슬픔이나 무관심을 표현하는 색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파란색은 여러 가지 전형을 가지는데 많은 것들이 상희의 감정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자폐적인 성향을 가지고 지난 30년간을 살아오며, 본인의 감정을 전달하지 못하고, 다른 이의 감정을 전달받지 못하는 시간을 보냈을 상희는 늘 외부적으로 자신의 현 상태가 안정적임을 표현해야 하는 강박에 시달리며, 소통의 부재로부터 오는 외로움이나 슬픔을 파란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폐를 수학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소통의 부재가 당연한 일이어서 자신 말고 다른 이들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다고 정의되기는 하지만, 상희를 보면 과연 그런 정의가 모든 자폐에게 확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맞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녀가 파란색으로 그려내는 도식화된 새, 삼각형, 사각형, 원의 도형도 외로움에 대한 자기표현을 집착적으로 분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고상희, <무제>, 260\*370mm, 하드보드지에 풀라주, 2019



고상희, <무제>, 260\*370mm, 하드보드지에 풀라주, 2019



고상희, <무제>, 260\*370mm, 하드보드지에 풀라주, 2019





고상희, <무제>, 260\*370mm, 하드보드지에 풀라주, 2019



고상희, <무제>, 260\*370mm, 하드보드지에 풀라주, 2019



## DREAM BLOSSOM ACADEMY

### 김종문, 관념과 행위의 사이

의식의 흐름이 이해 가능한 범주 안에서 대화를 가능하다면 그는 2019년에 작업을 하는 비장애인 작가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그는 설명해내야 할 것이 이 무척 많은 작가일 것이다. 그가 재현하는 형상의 드로잉을 계속 쌓아 올리는 그에게 초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초록에 대한 일반적인 정서는 자연에서 오는 색의 대명사로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겠지만, 김종문의 초록은 매우 직관적이다. 그가 선호하는 시리얼과 포카리스웨트로부터 오는 초록색이다. 그가 겪고 있는 장애의 특성상 그가 바라보는 두 사물의 색은 매우 정확하고 직관적일 것이다. 포카리스웨트의 예를 들면, 상품의 겉표지를 감싸고 있는 cerulean이라고 불리는 특유의 상징적인 파란색이던가, 그 내용물이 가지는 탁한 하얀색 중에 하나로 표현되어야 할 것인데, 종문의 그림 안에서는 그 두 가지 중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어릴 적 받았던 미술 교육의 관점에서는, 그에게 사물의 정확한 색을 인지하는지를 확인하고, 주제와 표현의 일체를 위해 표현의 방법을 교정해야 한다 생각할 수도 있다. 혹은 감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작품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범주가 줄어들기도 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그는 그가 본 것에 대해 솔직함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그에게 일반적인 대화 방법으로 그의 일련의 결과에 대해 듣기는 어려움이 따르고 그의 옆에서 그를 지속해서 관찰할 수 있는 행운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내어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매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관념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게 추상적이고, 현실에서 유리되어 있어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하지만 김종문의 작업을 볼 때 이전에 경험했던 것을 관념으로 저장한 뒤 행위의 시점에 풀어내는 그의 미술언어 안에 '관념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작업을 여는 열쇠라 할 수 있다.



김종문, <포카리스웨트>, 605\*730mm, 캔버스,매직,아크릴, 2019



김종문, <포카리스웨트>, 605\*730mm, 캔버스,매직,아크릴, 2019



김종문, <포카리스웨트>, 605\*730mm, 캔버스,매직,아크릴, 2019



김종문, <포카리스웨트>, 605\*730mm, 캔버스,매직,아크릴, 2019



\*  
송우석

# DREAM BLOSSOM ACADEMY

---

\*  
송우석, 인상(Impression)에 의한 왜곡

송우석은 만화적 표현이 두드러진다. 본인이 평소에 즐기고 있는 애니메이션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캐릭터를 재현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매우 흥미로운 것은 애니메이션의 이야기들을 서포트하는 사물들의 묘사이다. 시계, 스텐드형 전등, 가방, 자동차 등의 사물들을 그의 방식대로 왜곡하여 표현하고 있다. 특히 송우석의 그림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이다. 하지만 자동차의 묘사에 바뀌의 크기와 자동차 몸체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지점은 흥미롭다. 그에게 보여진 애니메이션에서 그에게 어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어찌보면 표현의 방법이 미숙한 점이 왜곡된 표현의 요인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직관적인 그의 평소 표현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처음 대상을 접했던 당시의 인상에서 왜곡이 시작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로 인해 송우석의 그림은 연속적인 그림이었을 때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그림 하나하나에서도 색상의 왜곡과 형태적인 왜곡에서 오는 특유의 귀여움으로 유머코드가 보이기도 하며, 그런 왜곡으로부터 그의 그림에 대한 흥미가 점점 커진다.



송우석, <화분>, 종이, 수채색연필, 레진 2019



송우석, <조명>, 종이, 수채색연필, 레진 2019



송우석, <자동차>, 종이, 수채색연필, 레진 2019



송우석, <시계>, 종이, 수채색연필, 레진 2019



송우석, <화분>, 종이, 수채색연필, 레진 2019



송우석, <아기공룡>, 종이, 수채색연필, 레진 2019



송우석, <소년>, 종이, 수채색연필, 레진 2019



송우석, <닭>, 종이, 수채색연필, 레진 2019



\*  
송지수

DREAM BLOSSOM ACADEMY

---

\*  
송지수, 다 했어요

‘성실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 주저함이 없다. 이미지의 선택에 늘 적극적이며, 이미지를 선택하는 이유가 항상 분명하다. 심미적인 선택과 성실한 표현이 송지수를 정의하는 단어들이다. 재현할 대상이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형태적으로 난해한 부분을 만났을 때 고민하고 상의하는 송지수는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하다. 그런 이유들로 그녀는 유독 완성도에 대한 갈증이 크다. 오늘 완성해야 하는 분량에 대한 분량을 스스로 정하고 확인하고 싶어한다. 이런 이유들로 유독 작은 크기의 베이스를 유지한다. 주로 4호 이내의 작품을 주력 사이즈로 유지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그렇다고 그녀의 도전의 크기가 작은 것은 아니다. 완성의 대한 갈망 만큼이나 중요한 그림의 퀄리티는 손에 묻히는 것을 유독 싫어하는 그녀의 성향도 이겨낸다. 현재 그녀가 주력하고 있는 재료는 오일 파스텔인데, 그림의 완성도를 위해서 손에 묻는 기름 베이스의 오일 파스텔의 사용도 과감히 불사한다. 발달 장애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그녀의 도전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다.

---





송지수, <강아지>, 260\*180mm, 캔버스에 오일파스텔, 2019



송지수, <테디베어>, 260\*180mm, 캔버스에 오일파스텔, 2019



송지수, <팬더>, 260\*180mm, 캔버스에 오일파스텔, 2019



송지수, <강아지>, 260\*180mm, 캔버스에 오일파스텔,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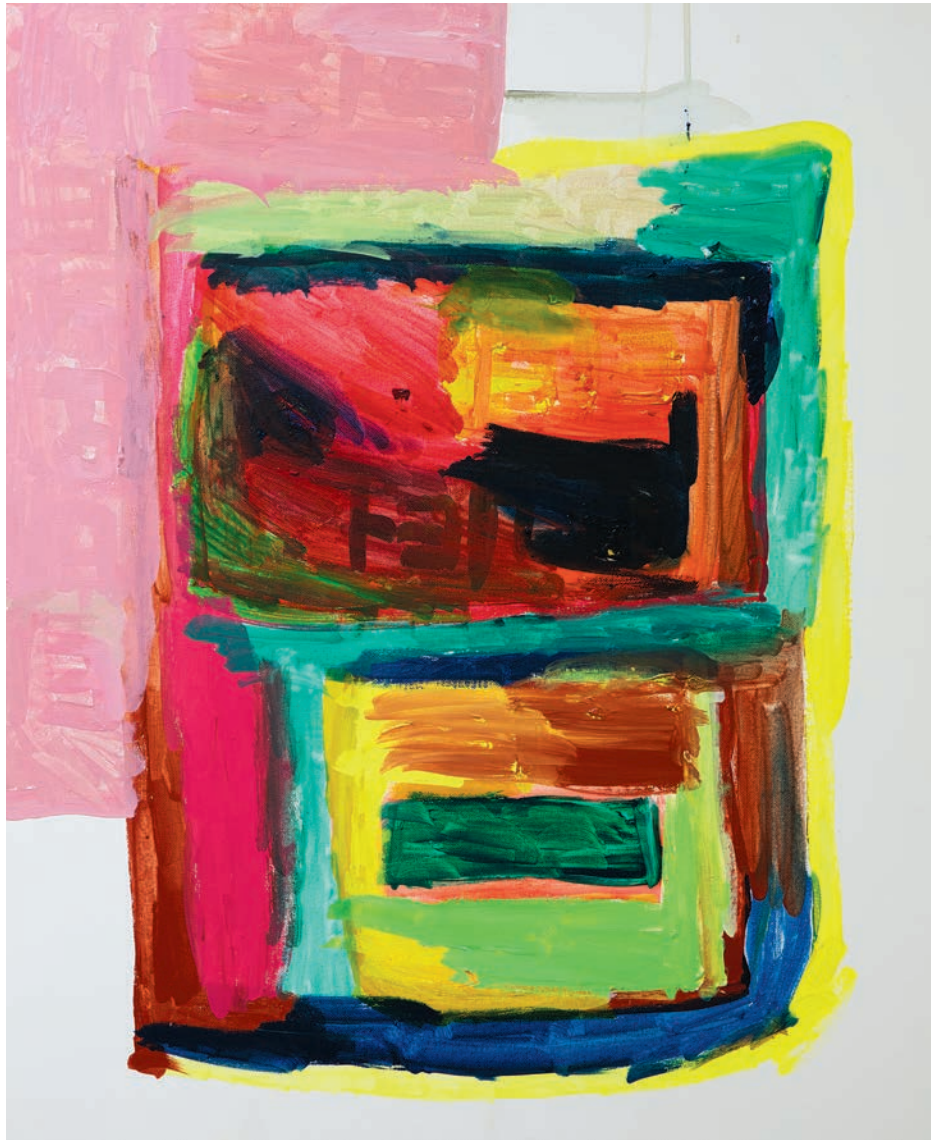

---

신현빈, 의식의 이동

신현빈의 첫번째 자유 작업을 기억한다. 그리고 싶은 것을 아무것이나 그려보라 했더니 푸른색 네개의 원을 물감이 질편한 붓으로 그려내고 작품의 제목은 드론이라 했다. 최근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쿼드콥터 형태의 드론의 4개의 프로펠러가 힘차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인 듯 했다. 화면에 있는 4개의 원은 드론이라 부르기에 충분했고, 그것이 물감의 물성과 합쳐져 제법 조형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이런 계기로 신현빈의 캔버스 작업은 시작되었다. 이 작업들은 대부분 현빈의 시각적 경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다. 텔레비전 리모트 콘트롤러, 에스프레소 머신, 본인 자신이 자주 등장하는 신현빈의 작업은 물감의 물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특징과 더불어 그의 의식에 흐름에 따라 하나의 재현된 덩어리에 다양한 주제를 동시에 가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의 인식의 지점이 변화함에 따라 처음에 그려놓은 사각형의 형태가 에스프레소 머신이 되기도 하고, 경찰서가 되기도 하며, 테이블이 되기도 하는 점이다. 신현빈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뿐이다. 그의 현재 인식의 지점을 질문을 통해 인지 시켜주며, 그의 인식을 기록하는 일 뿐이다. 그림안의 그의 기억들은 그의 자서전 그림 안의 이야기를 완성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구조를 평면적으로 해석하는 그의 표현적 특징과 합쳐져서 아주 미니멀한 형태로 시각화 된다.

---



신현빈, <TV 모니터링 1>, 605\*730mm, 캔버스에 아크릴, 2019



신현빈, <TV 모니터링 2>, 605\*730mm, 캔버스에 아크릴, 2019



신현빈, <리모컨>, 605\*730mm, 캔버스에 아크릴, 2019



신현빈, <달력>, 605\*730mm, 캔버스에 아크릴, 2019



## 이보림, 편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자주 비장애인들과의 소통이 어려운 사람들로 간주하곤 한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지낸 시간이 쌓여갈수록 그들이 소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장애인의 장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비장애인의 이해의 범주가 장애인의 범주에 미치지 못함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에 대한 증거로 이보림의 편지에 대한 집착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보림은 본인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문자로 해결하려는 지점을 가지고 있다. 언어적인 표현은 상대방과 대화의 리듬이 상호적이어야 한다면, 문자적인 표현은 본인의 리듬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서 하고 싶은 말은 천천히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여진다.

이와 같은 언어와 문자 비슷하지만 다른 표현이 특징은 발달장애에게만 해당되지는 않는다. 현재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소통의 방법은 화자와 청자와의 시간적 간격을 아주 짧은 시간으로 줄여놓고 있다.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 소셜네트워크시스템 등에 이르기까지 대화의 방법은 점점 빠르게 전달되는 방향으로만 발전해 왔지, 더 신중하게 전달되는 방향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이보림은 의사소통의 신중함이 주는 매력을 상기시킨다.



이보림, <무제>, 210\*297mm, 종이에 매직, 2019



이보림, <무제>, 297\*210mm, 종이에 매직, 2019



이보림, <무제>, 297\*210mm, 종이에 매직, 2019



\*  
정문성



### 정문성, 충실한 기록자

우리는 중요한 순간을 마주할 때 사진을 떠올린다. 행복한 순간, 축하하는 순간, 모두가 함께하는 순간 우리는 사진으로 순간을 기록한다. 우리는 매 순간 순간을 평가하고, 좋게 평가된 순간을 기록한다. 하지만 누군가가 기록의 의무를 맡게 될 때, 기록하는 사람은 순간을 평가하지 못하고, 기록의 의무에 충실하게 된다. 어느 순간은 누구에게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문성과 함께 D.B.A.를 진행하는 동안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재료나 소재를 찾아주지 못해 많은 고민이 들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 카메라를 쥐어준 순간 그는 집중하지 못할 때 산발적으로 드러내는 여러 잡담을 한순간에 멈추었다. 다양한 앵글, 빛의 미묘한 변화, 촬영해야 하는 순간들을 찾기 위해 그의 눈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는 수업 시간 내내 촬영을 멈추지 않는다.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대상이 변화하는 부분, 대상의 주변이 대상을 시각적으로 변화시키는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작업이다. 사진은 다른 예술 활동과는 다르게 내가 하는 행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라는 매개체를 이용해 내가 현재 보는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방법으로 시각적 결과물을 사용한다. 정문성이 제시하는 이미지는 우리가 함께한 순간들을 기록하는 것에 있지만, 점차적으로 그가 우리와 공유하고 싶은 시각으로 옮겨가고 있다. 주변에 산재해 있는 정물로 시선이 점차 옮겨 가고 있으며, 그가 촬영한 결과물은 워크샵을 함께 하는 친구들의 작업 자료가 되고 있고, 그 또한 다른 사물, 다른 순간들로 옮겨가고 있는, 앞으로 그가 나누고 싶은 순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정문성, <무제>, 사진촬영, 2019



정문성, <무제>, 사진촬영, 2019



정문성, <무제>, 사진촬영, 2019



정문성, <무제>, 사진촬영,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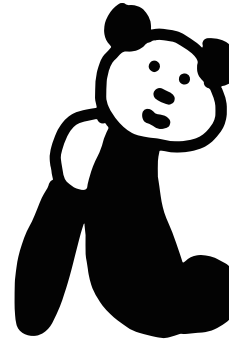
### 정민우, 요약적 묘사

정민우의 드로잉은 스스로의 표현양식을 가지고 있다. 인물의 표현에서 콧구멍이 보이는 앵글인지 아닌지에 따라 코의 묘사 방법이 이미 규정되어 있고, 사물의 색을 인지하는 것도 이미 관찰이 시작되는 순간 아주 빠른 속도로 색을 규정해서 하나의 색만으로 묘사한다. 이렇게만 두고 보면 모든 인물이 다 같은 얼굴로 모든 동물이 다 같은 동물로 그려져서 관찰에서 오는 그림이 아닌 관념적인 어린아이들의 정형화된 그림처럼 보인다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의 그림은 방법적인 면에서 오는 공통의 표현 방법이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관찰과 묘사의 지점을 가진다. 특정 인물의 묘사들은 그들의 특징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미국의 대통령들과 유명 아이돌스타들의 캐리커처 그림들을 살펴보면, 그림만 보는 순간에도 누군지를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이고, 일전에 진행했던 시니어 12분의 캐리커처 작업에서도 각 인물의 특징을 명확히 묘사해 구분의 지점을 가진다. 단순화된 인물의 묘사 안에 구분의 방점으로 인지의 지점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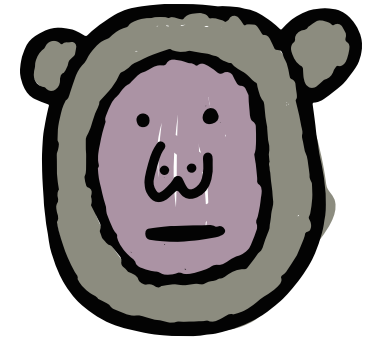
또한 그의 색에 대한 감각은 그의 그림을 따스함의 지점으로 이끈다. 그가 선택하는 색은 그가 인지한 색의 정확한 재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존재를 사랑스럽게 만들 색으로의 미묘한 변화의 지점을 가진다. 가령 우리가 흔히 파란색으로 불리는 색을 인지하면, 수많은 파란색 중에 관찰된 파란색이 아닌 그의 머릿속에서 걸러진 대상의 내면적인 속성을 불러일으키는 파란색으로 필터링 되어 그가 표현한 대상에 대한 애정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런 그의 표현에 대한 방법은 그가 가진 인사에 대한 열정, 그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 대한 그만의 관심 표현이 그림으로 드러나는 지점이 아닐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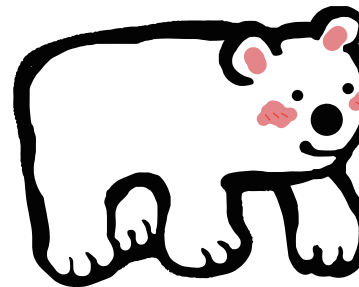
정민우, <새>, 디지털드로잉,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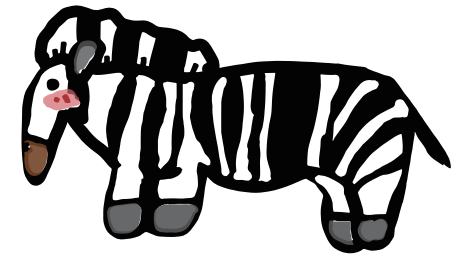
정민우, <팬더곰>, 디지털드로잉,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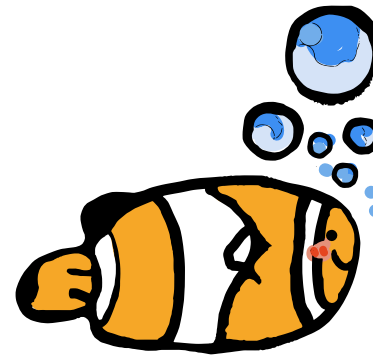
정민우, <원숭이>, 디지털드로잉,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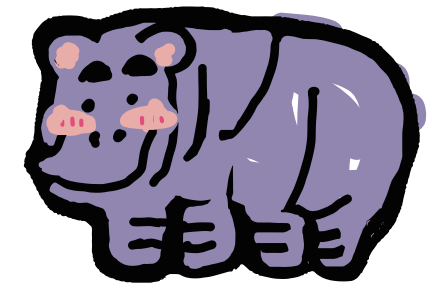
정민우, <북극곰>, 디지털드로잉, 2019



정민우, <얼룩말>, 디지털드로잉, 2019



정민우, <물고기>, 디지털드로잉, 2019



정민우, <하마>, 디지털드로잉, 2019



\*  
정효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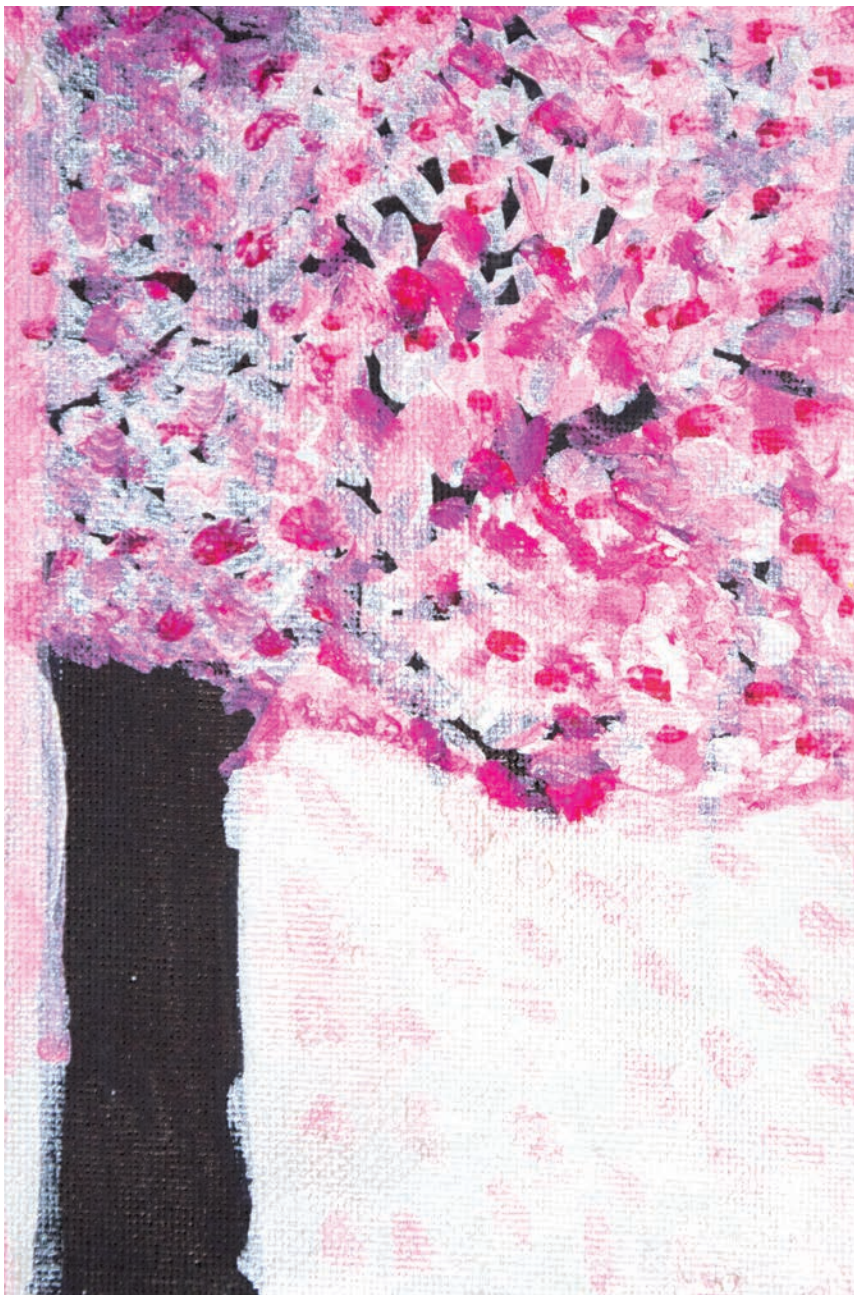
## DREAM BLOSSOM ACADEMY

---

\*  
정효경, 마법의 감정

평소 코스튬 플레이어로서 활동하는 정효경은 만화에서 등장하는 마법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마법의 결계, 지팡이, 주문, 타로 같은 만화적 코드에서 부터 시작되는 그녀의 관심은 그림 안에서도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 화면의 경계를 다루고 별, 달 등의 주술적 대상을 선적으로 재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나 마스킹 테입으로 캔버스의 일부를 가리고 화면에 그림을 그린 뒤 나중에 제거하여 캔버스에 흰 면을 처음 상태로 유지하는 효과에 관심이 많다. 그런 마법의 코드로 소통하기를 희망하는 정효경은 최근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지며, 희노애락에 대한 표현의 방법을 찾는 것에 몰두하고 있다.

---



정효경, <봄>, 100\*150mm, 캔버스에 수채화, 2019



정효경, <슬픔>, 100\*150mm, 캔버스에 수채화, 2019



# DREAM BLOSSOM ACADEMY



## 최병철, 이미지의 생산

병철이 생산해내는 이미지들은 상당히 즉각적이다. 이미지 혹은 물체 그 자체를 접하면 병철은 불과 몇 분 안에 이미지를 생산해 낸다. 아니 사실 그가 그릴 그림은 그의 머릿속에 몇 초 안에 결정 되는 것 같다. 그의 그림 그리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림의 특징을 색에 의해 가장 먼저 정리된다. 초록색 오이, 연두색 브로콜리, 보라색 가지 등 언어에 의해 가장 먼저 정의되며, 그다음은 사물의 형태적 특징 예를 들면 구멍은 몇 개인지, 도식화시켰을 때 어떤 도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다리는 몇 개 인지 팔은 어디까지 보이는지 등을 구별해내어 쏟아내듯이 이미지를 생산해낸다. 이는 그가 그려낸 이미지만 보면 어린아이가 그려내는 시점 등이 적당히 무시되고, 형태가 많이 단순화된 그림처럼 보이지만, 그가 관찰한 사진과 동시에 제시되면 그가 빠른 시간 안에 잡아낸 사물의 특징들은 때로는 상당히 날카롭다. 과일의 단면이 가지고 있는 구멍의 개수 및 모양이 상당히 치밀한 면이 보일 때가 있는가 하면, 사물의 사진이 가지고 있는 색 정보가 재현되는 지점이 생각보다 날카로운 측면이 많이 보인다.

이런 치밀함도 그의 그림이 주는 매력이지만, 다중적인 형태를 직면했을 때 그의 고민의 흔적도 그의 또 다른 그림의 매력이다. 그의 그림 중에 펭귄 가족이 있는 사진을 재현한 그림이 있는데 세 마리의 펭귄을 한 덩어리로 표현해 내는 것은 그에게 하나의 도전이었을 수도 있다. 두 마리 부모 펭귄 사이에 아기 펭귄 한 마리, 세 개의 덩어리가 하나처럼 구성되어 있는 것, 게다가 아기 펭귄은 두 부모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있어 적당한 무게감이 부모의 털을 파고들고 있는 형상이 아기 펭귄의 검은 머리와 그림자 사이를 모호하게 느끼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그의 직관적인 관찰과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형태의 재현은 병철이가 가지는 칭찬에 대한 갈망과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강박과 어우러져 그 만의 나열된 귀여움이 그의 그림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글. 노세환



최병철, <토마토>, 260\*180mm, 캔버스에 아크릴, 2019



최병철, <주전자>, 260\*180mm, 캔버스에 아크릴, 2019



최병철, <닭>, 260\*180mm, 종이에 오일파스텔, 2019



최병철, <무제>, 520\*210mm, 종이에 수채색연필, 2019



최병철, <무제>, 520\*210mm, 종이에 수채색연필, 2019



최병철, <무제>, 520\*210mm, 종이에 수채색연필, 2019



최병철, <무제>, 520\*210mm, 종이에 수채색연필, 2019



\*  
 최재훈



최재훈, Color chart

1년차 때부터 나타나는 최재훈의 특징은 조색을 하는 것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감회사에서 생산해내는 다양한 색을 단 한번도 그대로 쓴 적은 없다. 늘 둘 이상의 색을 섞어 본인만의 색을 만들려고 한다. 때로는 제공되는 워크샵 자체보다도, 때로는 그리려는 그림보다도 훨씬 더 색을 섞는 팔레트에 집중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최재훈이 즐기고 있는 이런 행위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최재훈에게 중요하지 않은 행위라고 착각했던 것 같다. 그만의 칼라를 아카이브하기를 기대해서 손바닥 크기의 작은 캔버스를 그에게 주며, 칼라차트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는 주변의 것들을 그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때로는 같이 작업하는 친구들이 그림을 그리기 위한 자료를 재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들의 그림 자체를 기록하기도 하며, 때로는 자화상을 그리기도 하며, 때로는 기억 속의 소재를 그리기도 한다. 이제 그는 자신의 그림의 세계를 확고하게 구축하고 있다. 그의 경험에 대한 아카이브는 최재훈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확실한 통로가 되어 가고 있다.





최재훈, <집>, 150\*100mm, 캔버스에 수채화, 2019



최재훈, <낙타>, 150\*100mm, 캔버스에 수채화,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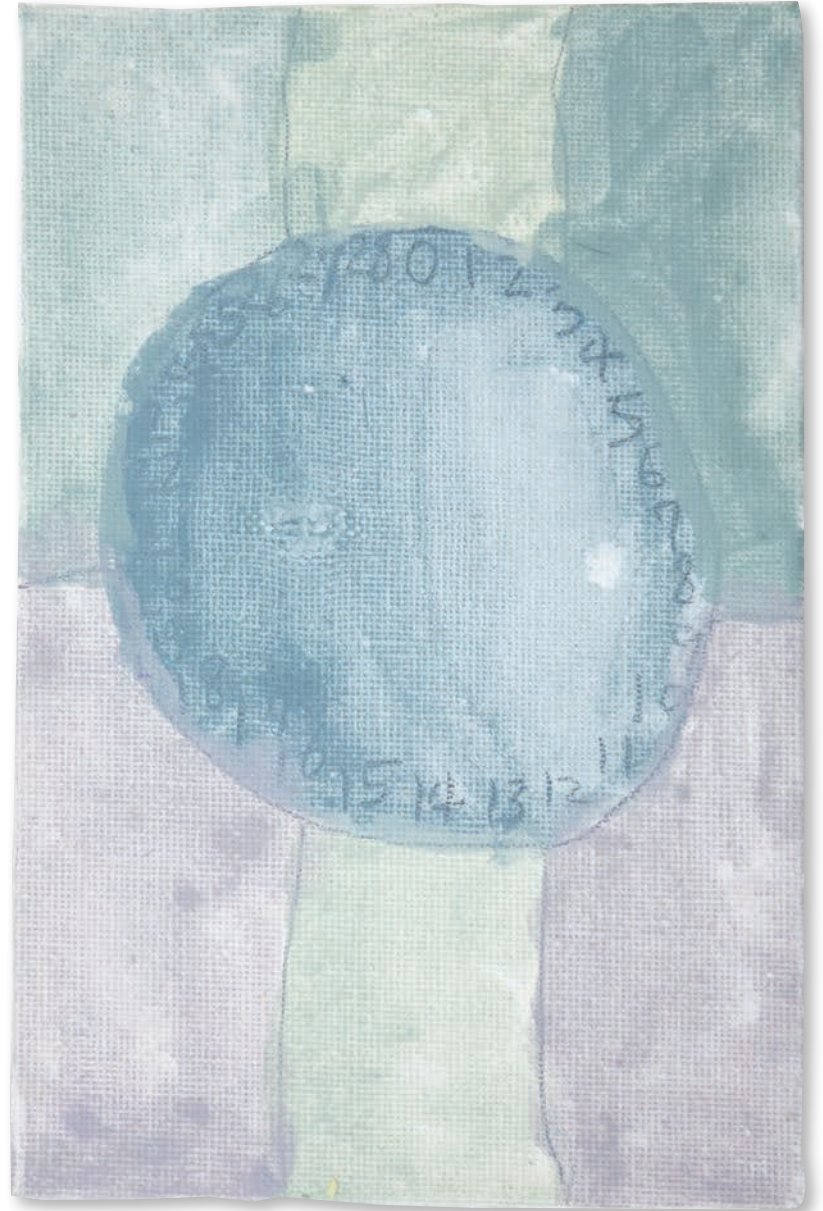
최재훈, <진돗개>, 150\*100mm, 캔버스에 수채화, 2019



최재훈, <사슴>, 150\*100mm, 캔버스에 수채화, 2019



최재훈, <소녀>, 150\*100mm, 캔버스에 수채화, 2019



최재훈, <시계>, 150\*100mm, 캔버스에 수채화, 2019



### 홍영훈, 직관에 의한 묘사

홍영훈의 최근 작업들은 그의 이런 그림들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그의 작업 과정은 매우 단순하다. 원하는 그림들을 인터넷에 부유하는 이미지 중에 골라내고 그것을 여타의 다른 고민 없이 그려낸다. 물론 그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 중에 그의 생각을 들어볼 기회가 있으면 좋으련만, 그가 발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비장애인들과 소통은 다소 어려워 다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가 골라낸 일련의 이미지들을 보면 모두 털이 많은 동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일단 감히 미루어 짐작하는데 그는 그 체모 묘사에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아카데미 미술의 과정에서는 살아있는 동세를 가진 동물을 그릴 때 해부학적인 구조 습득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하지만, 그의 그림 안에는 왼쪽 어깨가 올라가면 반대편 어깨는 반듯이 내려가야 하고 목의 구조는 척추를 근간으로 하여 세워져야 하는 등의 구조적인 이해는 보이지 않는다. 다소 형태가 어그러진 듯한 원숭이와 팬더, 곰 등의 그림은 적당히 무시된 해부학적 구조 탓에 그의 직관적인 묘사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든다. 그림의 전체를 보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털 한 올 한 올과 앵무새의 부리 묘사는 그가 얼마나 정직한 재현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런 관점 안에서 솔직한 회화적 그림을 마주하게 만든다.



홍영훈, <그리스>, 530\*530mm, 캔버스에 오일파스텔, 2019



홍영훈, <북극곰>, 530\*530mm, 캔버스에 오일파스텔,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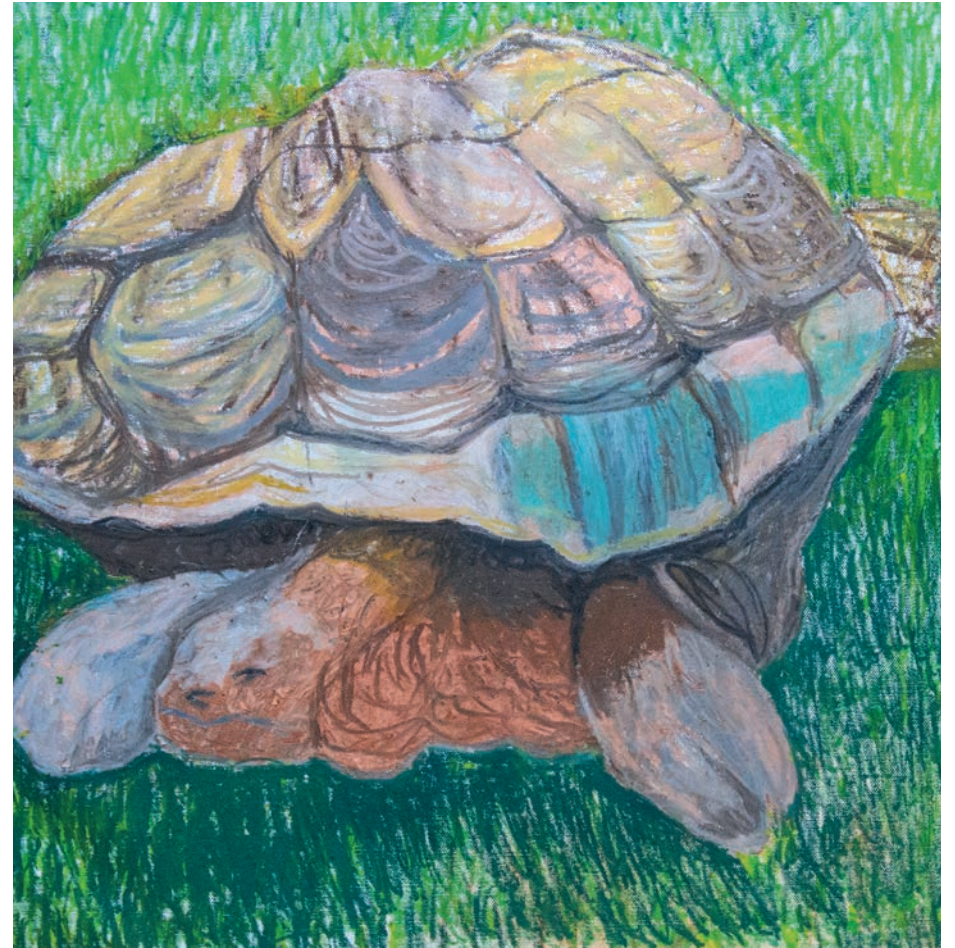
홍영훈, <원숭이>, 530\*530mm, 캔버스에 오일파스텔, 2019



홍영훈, <양>, 530\*530mm, 캔버스에 오일파스텔, 2019



홍영훈, <펭귄>, 530\*530mm, 캔버스에 오일파스텔, 2019



홍영훈, <거북이>, 530\*530mm, 캔버스에 오일파스텔, 2019

## 드림블라썸아카데미 Dream Blossom Academy

주관· 주최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복지관

지원 아산사회복지재단

협력 서울특별시중구청·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토탈미술관

### Dream Blossom Academy 작가

고상희·김중문·송우석·송지수·신현빈·이보림

정문성·정민우·정효경·최병철·최재훈·홍영훈

### 협력작가

노세환·손민지·양수형·박혜민·김시하·최선·최유리

Rémi Klemensiewicz·한경은·최지이·신제현

###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복지관

관장 정진옥

사업단 안영환·김솔림·이소연

### 토탈미술관

관장 노준익

책임 큐레이터 신보슬

글. 노세환

영상 최윤석

디자인 산책자

## 드림블라썸아카데미 2019 종합전시

Dream Blossom

기간 2019년 6월 19일 (수) ~ 6월 24일 (월)

장소 인사아트센터 제3전시장